

‘함평 추억공작소’ 신축 청신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통과 사업비 70억원...70~80년 유물 전시



함평군의 역점 사업인 함평추억공작소(구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함평군은 13일 함평추억공작소 신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소실됐던 추억공작소는 막대한 복구비용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에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함평군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2145㎡ 규모로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 공공 및 경관 디자인 심의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함평추억공작소 신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함평이 축제도시에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엑스포공원에 위치한 함평추억공작소는 함평군의 70~80년대 유물 등을 전시해 옛 추억과 향수를 회상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명칭 공모를 통해 기존 문화유물전시관을 함평추억공작소로 변경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신안군 고이도 ‘새뜰마을 공모사업’ 선정

신안군은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균형위/농림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 공모에 압해읍 고이도가 선정되어, 총 21억원(국비75%, 도비9%)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압해읍 고이도는 뱃길로만

연결되는 섬마을로 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통여건과 강한 해풍으로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정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안전난간 설치, 가로 등 교체 등 기반시설 확충과 폐교 리모델링, 담장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마을의 생활·위생 환경정비 추진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안군에서 추진중인 새뜰마을 사업은 가란도의 전통 돌담길, 병풍도의 맨드라미 색채정비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사업 시행으로 변화된 마을과 함께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수지도, 육도 등 총 5개소(97억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가족센터 새출발...가족지원 원스톱 서비스 돌입

목포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 ‘목포시가족센터’로 새롭게 출발했다.

목포시는 목포시건어물갈센터 5층에서 10일 김중식 시장과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가족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개소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취약위기 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가족유형에 구분없이 다양

하고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을 ‘목포시가족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목포시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포통합가족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육아나눔터, 언어발달실, 컴퓨터실, 상담실, 요리교실 등 13개 활동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가족역량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의 관계향상 및 자녀성장 지원, 가족상담, 한국어교육 등 기존 이원화된 서비스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만큼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관 통합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출발하는 목포시가족센터가 앞으로 목포시 가족들을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울진 산불피해농가 조사료 긴급 지원

1차 전남 10여개 한우협회 시군지부 참여...2차까지 실시 계획

무안군은 지난 10일 전국한우협회무안군지부와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공동으로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한우농가에 조사료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료 지원은 전국한우협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가에 힘이 되어 주세요,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2차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며, 1차 지원에는 전남 10여 개 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참여했으며, 전달된 조사료(240

톤 12,000kg)는 화재로 인한 조사료 전소로 급여하고 있지 못하는 울진군 한우농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시호 한우협회 무안군지부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한우농가의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번 조사료 긴급 지원이 한우농가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빠른시일 내에 2차 지원 물량도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한우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내달 30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

영암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에서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2년도 사업 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면 직접지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농업경영정보

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모든 사업 신청 필자는 반드시 신청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만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ha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과수는 ha당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기타작물은 ha당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이나,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신청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